

한미 FTA에 대한 소비자인식과 전망

김 경 자(가톨릭대학교 교수)

GATT이후 무역시장의 새로운 질서로 자리잡았던 WTO체제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1992년 EU의 출범과 1994년 NAFTA의 발효를 계기로 2005년에는 지역무역협정이 세계 총무역의 55%를 차지할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대외경제 규모가 GDP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FTA를 외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1994년부터 칠레, 싱가포르, ASEAN 연합 및 미국과 FTA체결을 완료하였고 일본 및 중국 등과의 협정체결을 준비하고 있다.

FTA 협정체결로 인해 산업집단별로 다양한 득과 실이 존재하기 때문에 집단별로 찬반의견이 분분하게 되지만 특히 한미FTA의 체결 전후에는 광우병 시위와 맞물려 사회적으로 격렬한 논쟁이 벌어져 있다. 그러나 특정산업에 대한 시각을 배제하고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한미FTA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조사는 매우 드물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미FTA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과 협정체결의 효과에 대한 소비자전망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소비자들이 한미FTA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협정체결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지, 그리고 협정체결 후 어떤 사회경제적 변화가 올 것이라고 전망하는지를 조사하였다.

본조사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 소비자 5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남자와 여자가 각각 50%, 그리고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 40대 이상이 각각 약 1/3을 차지하며 학력은 대졸 이상이 55%였다. 조사자료는 온라인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2007년 11월에 수집하였는데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서 $\pm 4.2\%$ 이다.

조사결과 한미FTA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식수준은 매우 낮았다. 한미FTA의 내용에 대해 ‘매우 잘’ 또는 ‘대체로’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38.7%에 불과하였다. 또한 한미FTA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은 45.3%였는데 이는 협정체결 전 대략적인 찬성비율이었던 60% 내외보다 낮아진 것이다. 학력과 소득수준이 높고 한미FTA에 대해 잘 안다고 응답한 사람은 학력과 소득수준이 낮고 한미FTA를 잘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보다 한미FTA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남자는 여자보다, 한미FTA가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답한 집단은 불리하다고 답한 집단보다 찬성비율이 높았다.

한미FTA 체결 이후의 전망에 대해서는 긍정적 전망과 부정적 전망이 혼재하였다. 긍정적인 전망과 부정적인 전망 각각 9개 항목에 대한 응답자들의 동의정도를 조사한 결과 가장 긍정적인 전망은 ‘외국인 투자 증가’와 ‘국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증가’였고 가장 부정적인 전망은 ‘경쟁력이 약한 산업의 도태’와 ‘소득양극화’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응답자의 50%이상이 동의한 항목은 ‘선진적인 사회제도 정착’, ‘소비자 혜택증가’, ‘우리경제의 미국예속’, ‘특정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상승’ 등이었다. 이런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응답자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방안은 ‘소비자안전 기준 강화’, ‘검사검역 강화’, ‘생산지 표시’, ‘품질인증표시’, ‘소비자정보제공’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세계 무역시장 변화와 전체적인 윤희리를 따져 한미FTA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동시에 안전과 품질문제, 소비자선택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